

수능 D-100... 전북교육청, 마무리 대비 전략 제안

‘가짜공부’ 경계·순수공부 시간 확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능 D-100일 대비 실천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했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수험생 증가 △의대 정원 축소 △전공자유선택제 강제 등 입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략적인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가짜 공부’를 꼽았다. 많은 수험생이 자신의 학업 수준이나 방법에 대한 분석 없이 온라인강의나 새로운 공부법만 탐색하는 ‘가짜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보다는 기출문제 분석, 연계교재 학습, 취약 개념과 문제 유형 보완 등을 강조했다. ‘가짜 공부’는 단기 위안을 제공할

정시 위주로 준비할 경우 전 과목 고득점 목표로 학습해야 생활습관도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조정... 체력 관리도

뿐만 성취감과 체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므로 학업이 자신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공부에 집중하는 순수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상속 자투리 시간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공부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입 전략에 따른 수능 대비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핵심 변수인 만큼, 특정 과목에서 목표 등급을 확보를 위한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수험생은 전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목표로 균형 있는 학습과 실전 감각 유지가 관건이다. 다만, 대학별, 모집유형별 전형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전형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원 전략을 기반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 시기부터는 생활 습관도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조정하고, 체력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점심 직후 진행되는 만큼 생활 리듬을 조정하고,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불안감

을 키울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대학 입시 설명회, 상시 진학 상담, 순수공부 60시간 약점보완 캠프, 수능 한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입 지원 사업을 운영중이다. 한편, 전북진로진학센터 누리집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에서 수능 학습전략과 입시 정보, 대입 상담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남은 기간 올바른 학습 습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양한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들이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2025년 부안교육지원청 초등학생 영어 체험 연수'를 부안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주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안지역 초등생, 전주대서 영어 체험

전주대·부안교육지원청, 캠퍼스 내서 운영... 15일까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년 부안교육지원청 초등학생 영어 체험 연수'를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안)과 협력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주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부안교육지원청의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안 지역의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및 기숙사에서 13박 14일 동안 집중적인 영어 체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전주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의 원어민 교수진과 영어 전공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전편 영어 몰입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연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활동들로 구성돼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Teach the Teachers', 'Geography Day', 'Science Day', 'Show & Tell Night' 등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팀별 활동, 그리고 식사 중 영어 회화 등이 포함된다. 전주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장인 토드 모리스(Todd Morris) 교수는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실생활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와 부안교육지원청은 이번 영어 체험 연수를 시작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효과 극대화 및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몸과 마음 지친 교사들에게 힐링 프로그램 제공 | 전북교육청, 15일까지 맞춤형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15일 맞춤형 교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기 중 교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교사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2학기를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사전 신청한 교사 38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감정오일·숲체험 △원예치유·영화치유·요가 등이다. 특히 교원들의 치유에 대한 갈증은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청으로 이어져 신청 시작과 동시에 모든 프로그램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15일 맞춤형 교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한국게임과학교,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DIY 체험 부스' 운영

한국게임과학교등학교가 특허청 지정 발명 특성학교의 강점을 살려 최근 2025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서 'DIY 발명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부스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센서 활용 인공지능 물체 감지 센서, 프로펠러 자동차 제작 키트 등을 체험하며, 발명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중학생은 "자연법칙과 원리를 이해하며, 직접 센서와 부품 등을 조립해보니 발명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고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게임과학교 관계자는 "창의력은 게임처럼 재미있고 자유로울 때 더욱 발휘된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기술로 구현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는 점이 이번 참여의 큰 의미"라고 밝혔다. 안주연은 2004년 개교한 한국게임과학교등학교는 전국단위 모집으로 컴퓨터게임개발과, 소셜미디어개발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게임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방송, 로보,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등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발명교육과 IT 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차세대 창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미래산업 대응 위한 직업교육 기반 마련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환경 개선·실습실 기자재 지원 수요조사 진행... 본예산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직업계고 환경개선 및 실습실 기자재 지원 수요조사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춰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습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요조사는 노후화 된 실습·실습실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스마트제조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실습장비 수요 파악이 핵심이다. 학교별 수요 조사자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성을 평가한 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육 시설과 기자재의 현대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직업계고의 실질적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K-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호원대-전주대 연합,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협약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와 전주대 연합이 지난날 31일 전국 180여 개 방송 영상 제작사가 소속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이하 KIPA)와 로컬의 글로벌화를 위한 새로운 K-콘텐츠 프로젝트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호원대-전주대 연합이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본지정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로컬 문화 기반의 글로벌 K-콘텐츠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은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호원대학교 정 의봉 부총장과 최부현 산학협력단 부단장, KIPA 황태준 회장 및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상호 간의 시너지와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본 지정 이후 KIPA와 회원사의 풍부한 인프라 및 전문적 경험을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접목하여 K-컬처 분야의 실질적 인재 양성과 로컬의 글로벌화를 위한 콘텐츠 프로젝트 연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호원대-전주대 연합과 KIPA는 글로벌대학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대학의 문화예술 교육이론이 실제 K콘텐츠 제작산업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유통 공연 사업 추진, △방송영상 산업 인재 교육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지역 방송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기획 및 협력 사업 발굴, △글로벌 아티스트 육성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운영, △기타 글로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협력 사업 추진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협약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교육청, 7일까지 중등교원 학습코칭 역량강화 심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7일까지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전주에서 교원 학습코칭 역량강화 심화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습코칭 기본과정을 이수한 중등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기록 전략 △기억 전략 △관계 전략 △시간 전략 △질문 전략 등 다섯 가지 핵심 코칭 전략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연수 마지막 날에는 전북 학습코칭 1기 전문교사 4명 강사로 나서 '학습코칭 수업디자인'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구체적인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학습의 본질과 전략을 익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늘봄학교 강사연수 '우수'

교육부 등 주관... 전라·제주권 1차년도 최종 평가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늘봄학교 강사연수 사업(전라·제주권) 1차년도 최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4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늘봄학교 1차년도 강사연수사업은 4개 권역 컨소시엄으로 구성, 연수생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5.9%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재를 개발해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환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인정받았다. 박병춘 총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 그리고 많은 연수생들의 참여로 1차년도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2차년도 사업도 전북권역의 늘봄학교 강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날 30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2025년 어린이 교육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방탈출 수학게임부터 체육대회까지

전주교대, 여름방학 맞아 '어린이 교육캠프' 개최

초등생 대상 체험·놀이 중심 교육프로그램 다채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날 30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2025년 어린이 교육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전주교대 학생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육캠프는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체험 및 놀이 중심 교육활동이다. 이번 캠프는 방탈출 수학게임, 투미놀 반응 과학실험, 체육대회 등으로 구성, 초등학생 36명과 예비교원 52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이흥희 교육위

원장(미술교육과 3년)은 "이번 캠프를 통해 예비교사로서 초등학생의 학년별 발달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해 준 덕분에 준비 과정의 수고로움도 잊을 만큼 보람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서와 소질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해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